

한우값 봄까지 현수준유지후 회복될듯

구정까지 강세후 보합세 유지..... 돼지값

농수산부가 올들어 처음으로 발표한 축산유통예고에 따르면 소값은 봄까지 현재의 수준을 유지하고 돼지값은 이달 중순까지 강세를 보이다가 그 후부터 안정세를 나타낼것으로 전망된다. 따라서 요즈음이 송아지를 구입할 적당한 시기이며 돼지사육농가는 앞으로의 돼지값 관측내용에 따라 사육마리수를 조절해야 할것이라고 강조했다. 소·돼지·닭의 관측 결과는 다음과 같다.

한우 연초 학비마련을 위해 소 출하 마리수는 늘어날 것으로 보이나 소입식자금조기용자, 수입최고기 방출중단등 안정대책에 힘입어 소값은 봄까지 현수준을 유지하다가 그 후부터 점차회복될 것으로 예상된다.

84년말 현재 전국한우는 2백31만8천마리, 젖소는 33만4천마리로 1년전에 비해 각각 15%, 22%가 늘었다.

그러나 2년이상이나 소값이 약세를 유지, 농가의 사육 의욕이 떨어져 소사육마리수는 오는 6월까지 더 늘어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.

돼지 돼지값은 구정때까지 강세를 보이다가 점차 보합세에 들어설 전망이다.

이는 돼지고기 소비가 늘어 큰 돼지수는 줄었지만 가격안정을 위해비

축 돼지고기의 적절한 방출이 예상되기 때문이다.

올 1월의 평균 큰돼지(90kg 기준) 값은 한마리에 14만 9천원, 새끼돼지는 3만5천원으로 4개월전보다 각각 35%, 20%가 올랐다.

달걀 달걀값은 울봄에 안정된 수준을 유지할 듯, 이는 지난해 12월평균(대란 10개 기준) 값이 4백97원으로 1년전에 비해 9%정도 높을뿐 아니라 산란닭수가 알맞기 때문.

고기닭 고기닭값은 대체될수있 는 돼지고기값이 좋은데 힘입어 울봄까지는 지난해 12월평균 값(생체 1kg 기준)인 9백8원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전망된다.

고기닭수는 84년말 현재 1천5백46만마리로 3개월 전보다 12%나 줄었다.